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2021년도 공군전우회 중앙회 정기 총회



공군전우(중앙)회는 3월 24일 공군호텔에서 중앙회 운영위원, 감사, 임직원 및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현역을 포함한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정기 총회 개최 선행사항인 정기 이사회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모임을 갖지않고 중앙회 이사 전원에게 사전회의록을 배부하여 2월16일부터 2월25일까지 On Line 으로 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어 정기 총회는 본회 정관 제 13조 2항에 '국가적 재난사태 등으로 정기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운영위원 총 27명중 20여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약식으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로 성원보고, 국민 의례, 회장 인사 및 개회 선언, 상정안건 보고, 회무보고, 김영곤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심의의결 안건으로 2020년도 결산서(안)와 2021년도 사업계획/예산서(안)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어 2부 행사로 공군본부에서 준비한 공군정책 소개, 공군 홍보 동영상 시청과 오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재앙 장기화가 모든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공군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지부/지회의 활동들이 크게 위축된 상태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정기 총회를 작년에 이어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몹시 아쉽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만남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공군전우회 발전을 위해 공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공군전우회 원들도 공군발전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 제69기 졸업·임관식

공군사관학교(공사)는 3월 19일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졸업생도 172명(남 149명, 여 18명,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대상으로 '제69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인 초청 없이 개최됐다. 순서는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후배생도 축하행진 및 축하비행 순으로 진

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해 국방TV 유튜브와 국방홍보원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졸업생도들의 감사 인사 영상, 학부모 졸업 축하 영상 등이 상영됐다.

이번에 정예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167명의 사관생도와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은 지난 2017년 입학해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하며 군사학사



와 함께 문학사·이학사·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생 중 타 생도들에게 모범이 됐던 조

아인 소위가 종합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0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입관식 보라매상 시상

공군전우회는 2월 23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 50기 공군항공과학고 (이하 항공고) 졸업 및 입관식에서 김영진 신임하사에 게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상장과 부상 및 메달을 전수했다.

이날 보라매상 시상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회 임원이 직접참석하지 못하고 교육사에 위임하여 수여됐다.

이날 공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임관자, 교육사 장병들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0기 항공고 졸업 및 입관식'에는 139명의 신임 부사관들이 지난 2018년 항공고에 입학해 고등학교 정규과정은 물론이고,



항공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입관식은 졸업증서 수여와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수여, 시상, 입관선서 등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페이스북 계정으로 행사를 생중계했다.//

공사총동창회, 동문 유가족에 장학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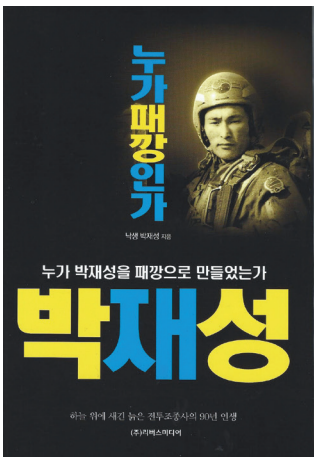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차규)는 3월 5일 동문 유가족의 대학생 자녀 4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무장학사업은 공사총동창회가 동문 유가족 자녀(공군본부 "하늘사랑 장학재단" 수혜자 제외)의 학업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이후 동문들의 심시일반 회사금 약 3,000여만원과 총동창회 운영 잉여 예산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 원년에 약 7,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변에 홍보활동을 통해 기금을 점차 확충하여 향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유가족들에게도 확대하여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등을 통해 기금을 점차 확충하여 향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생 유가족들에게도 확대하여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박재성 회원 자서전 출간



본회 박재성 회원(예 대령, 공사 2기)이 2월 15일 본인의 세 번째 책자인 자서전을 출간했다. 올해로 93세인 박 회원은 경

북 대구 출생으로 1951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53년~1963년에 F-51, F-86 T-33 교관 및 훈육관을 했다. 1963년에 항공기 추락사고로 전신 3도화상을 입고 일본 및 미공군 중앙의료원 등에서 38회의 성형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 회원은 1992~1996년에 보라매회(공군전우회 전신) 부회장을, 그리고 1994~1995년에 공사총동창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14년전에 본인의 인생을 정리한 자서전 '늙은 전투조종사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를 출간했으며,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이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꺼졌다고 생각한 그 재 속에서도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 같다. 그 작은 불씨를 살려 세 번째 책을 정리했다"며 "늙은이 허풍소리 듣는 기분으로 편하게 읽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화제의 인물"로 불리는 안호원 회원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언론방송인, PD, 연극인, 화가(한국화), 가수(오페라), 윤리학교수, 안보강사, 목사, 박사, 경비행기 조종사... 합기도 명에 5단이기도 한 본회 안호원 회원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는 나열하자면 참으로 길다. 그런 안 회원이 교사자격증 3개(윤리·상담·행정)를 포함 스포츠마사지사, 미술 심리 상담사 및 응급처치사 등 자격증이 무려 24개나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노령(만 71세)에도 불구하고, 안 회원은 현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도전한 상태다. 실습시간(160시간)을 모두 끝냈기에 8월엔 자격증을 받게 된다.



잔치를 벌리며 합창(합창단 부단장)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빈자의 등불'이라는 평을 받는 안 회원은 50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이 인정되어 '대한

민국 기네스북(최고기록인증)'에 등재되고, 또 '도전 한국인 명인 6호'로 등재된 바 있다.

이 같은 안 회원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3개 대학교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 상'을 받았고, 또 고등학교에서는 동창회원 일동으로 '모교를 빛낸 동문인 상'을 받기도 했다.

평소 자신의 분야에서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확산하며, 시집 등 저서도 13권이나 낸 안 회원은 현재 3개 인터넷신문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는 등 미발표된 작품으로 칼럼 1,873편, 시 1,020편, 수필 756편 등이 있다.//

최삼연 회원 일본에서 별세



본회 최삼연 회원(예 대령, 사후 8기, 공본 행정감역임)이 지난해 9월 25일 향년 92세로 일본에서 별세했다.

권성근 제16대 보라매회(공군전우회 전신) 회장(1998.71 - 2000.6.30.) 임기 중 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고인은 1971년 3월 31일 전역한 후 (재) 한국유류시험검사소 상근 이사장, (사)한국유탄유공협회 상근 부회장 및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했다. 고인은 13년동안 일본에 거주하며 도쿄에서 강연과 집필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한일 우호친선을 염원해 왔다.

고인의 장례식은 지난해 9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차후 고국에 모실 예정이다.(* 본 내용은 고국에 연고가 있는 보라매회 회원분들에게 부고를 전하라는 고인의 당부에 따라 유지를 이어 받은 유족들이 제공한 자료와 본회에서 보관중인 역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경지회



문경지회(지회장 조성수)는 지난해 9월부터 매월 3회 전우회 차량을 이용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가두 방송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과 상설시장, 공원, 종교시설 및 밀집지역에서 시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거리 캠페인으로 시내, 읍·면·동 곳곳을 찾아다니며 예방수칙준수 홍보활동을

을 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단산 모노레일, 고모산성 등 관광명소를 찾아 예방수칙 홍보전단 배부 및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문경지회는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염병예방을 위해 전우회 차량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중윤)는 3월 16일 지부 사무실에서 임원진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

된 인원으로 개최된 임원회의에서는 그 동안 미루어졌던 현안들을 심의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심층 토론회를 했다.

그리고 부산지부는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을 임원진 및 건물주인 이정화 고문의 동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태평양 공군지휘관 화상회의 참석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월11일 태평양 공군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 각국 지휘관들과 상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케네스 윌즈바흐(대장)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호주·인도·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21개국 공군지휘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태평양 공군 지휘관 심포지엄의 목적과 개요에 대한 소개를 듣고 공중영역 인식,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 심포지엄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



장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에서 보다 민첩한 대응과 성공적인 연합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내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합동 전 영역작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다양한 여내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여내 국가들의 상호 교류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2020 최우수 조종사’에 전영기 소령 영예

‘2020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공군19 전투비행단 F-16 조종사인 전영기 소령이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군은 3월2일 공군본부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0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배는 1979년부터 일선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비행경력과 작전참가 횟수, 비행 안전 기여도는 물론 전문지식, 체력평가 등을 합산해 총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해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전 소령은 1000점 만점 중 735점을 획득해 ‘공군 최우수 조종사’의 영광을 안았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탑건(TOP GUN)’과 달리 한 해 동안 모든 임무 수행



분야를 종합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탑건’을 올림픽 사격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라 비유한다면,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한 해를 통틀어 모든 분야에서 두루 우수한 ‘MVP 조종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 분야별 최우수 조종사로 전투임무기는 F-15K 조종사 송승환 소령, 훈련기 분야는 FA-50 조종사 강중호 소령, 기동·통제기 분야는 HH-47D 조종사 강병지 소령이 각각 선발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기종별 우수 조종사로 선발된 22명의 조종사도 공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

공군은 2월2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공군의 위상을 드높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2020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거행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는 평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협력 △특별 등 6개 부문에서 공군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개인 4명과 단체 5팀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먼저 ‘전투력 발전’ 부문은 공군방공유도탄 사령부 정보작전처와 공군관제사령부 32 방공통제전대 이명락 중령이, ‘조직운영 발전’ 부문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하기룡 군



수군무사무원이, ‘신지식·정보화’ 부문은 공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과 공군교육사령부 이용우 원사가, ‘희생·봉사’ 부문에는 공군전투사령부 예하 29전술 개발훈련비행전대 김승범 중위(진)가, ‘협력’ 부문은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특별’ 부문은 주한미군합동군사업무단(JUSMAG-K) 공군사업팀이 수상했다.//

2020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

공군은 2월4일 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0년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을 열고 공적 우수부대·장병을 표창·포상했다. 공군 장병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개최하는 안전 우수부대 시상식에서는 비행안전, 지상안전, 안전업무 세 분야에서 공적이 큰 비행단·전대·대대 등 부대와 장병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5비를 비롯해 53특수비행전대, 20전투비행단 121대대가 최우수 부대에 선정돼 참모총장 부대 표창을 받았으며, 15비 255대대 최우석 중령 등



9명은 개인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부대와 개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작전 요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무사고 기록 달성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등 안전관리 역량 발전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훈비, 2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3훈련비행단(3훈비)은 1월11일 “215비행교육대대 비행대장 홍석호 소령과 예비교관 정영진 소령이 탑승한 KT-1 훈련기가 1월 8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2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무사고 비행은 1987년 9월 30일부터 약 33년 동안의 기록으로 T-37 훈련기를 운용했던 비행시간과 2003년 1월 6일에 도입된 국산 항공기 KT-1 훈련기를 운용한 비행시간이 더해졌다. 이는 기종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안전한 비행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대대원들의 땀과 노력을 증명하는 결과이자 설



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KT-1 훈련기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빈틈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부대 특성상 새내기 조종사들이 처음으로 단독비행하는 비행단에서 수립됐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다.//

5공중기동비행단, 24만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공군5공중기동비행단(5비)은 3월8일 “24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3월 4일 열었다”면서 “행사는 각자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완수해 대기록 수립에 기여한 모든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약 30년에 걸쳐 이뤄낸 것으로, 지난 3월 오후4시쯤 이세리 소령과 박도빈 대위(진)가 조종하는 항공기가 임무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활주로에 안착하며 달성됐다. 한편, 부대는 C-130, CN-235, KC-330 등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운용해 공중급유, 공수·공정, 조명·대민지원 및 평화작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선박 침몰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탐색 구조작전, 야간탐색구조 지원 조명작전 등



을 수행하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디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부대는 아프간·이라크 전쟁 시 지원작전을 통해 국제평화 유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역 긴급구호 임무, 사이판 태풍 피해 국민 긴급이송 임무, 6·25 국군 전사자 및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고 있다.//

딘 헤스 대령 6주기 추모식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3월 31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6·25전쟁 항공전의 영웅이자, 대한민국 공군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고(故) 딘 헤스(Dean E. Hess) 미 공군대령의 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적 기념비 소개, 헌화 및 참배, 딘 헤스 대령에 대한 묵념과 경례 순으로 진행됐다. 딘 헤스 대령은 6·25 발발 당시 미 공군이 대한민국 공군의 F-51 전투기 훈련을 위해 창설한 부대인 바우트윈(BOUT-1) 부대장으로 우리 공군의 전투조종사 육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전쟁 초기 1년간 250여 회에 걸쳐 직접 출격해 적 지상군 격퇴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당시 딘 헤스 대령이 조종하던 F-51 전투기에 새긴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By



Faith I Fly)’은 오늘날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상징하는 구호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딘 헤스 대령은 러셀 블레이즈델(Russell blaisdel) 미 공군 준중목사와 함께 전장의 참화 속에 버려진 전쟁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도 후송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전쟁고아의 아버지’로도 불렸다. 우리 정부는 딘 헤스 대령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적을 기려 무공훈장과 소파상을 수여했으며, 공군도 딘 헤스 대령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공적기념비를 건립해 해마다 추모식을 거행해왔다.//

‘공군비전 2050’ 책자 발간

공군은 2월16일 “미래 전장환경을 선도할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을 담은 ‘공군비전 2050’ 책자를 최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군비전 2050’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군의 역할을 도출해 장기적인 공군 발전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공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대응할 무기체계 구축과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공군비전 2050’을 통해서는 창군 10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이자, 미래 전장에서 연합·합동작전을 주도할 강력하고 스마트한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해 공군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지난해 발간된 ‘에어포스 퀀텀 5.0’이 공군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우주, 사이버·전자기파, 지휘통제체계 등 5개 분야의 단계별 발전계획을 담았다면, ‘공군비전 2050’은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에어포스 퀀텀 5.0과 연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포괄적으로 다뤄 공군의 확장된 임무에 대해 모든 공군인이 인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했다.//